

서울 강서구 화곡동

페이커 '금의환향' 항저우 e스포츠 정상 등극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다펀 '페이커'로 유명한 이상혁은 1996년 서울에서 태어나 등원중을 졸업했다. 마포고 재학 중 LoL의 한국 서버가 열린 뒤 1년 만에 '고전과'라는 아이디로 랭킹 1위를 차지하는 등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이름을 날렸다.

재능을 알아본 담임선생님은 그의 아버지를 직접 설득해 중퇴를 권유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는 것을 용납해주는 부모가 드물지만 페이커의 부모는 자식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허락하고 지원했다.

이후 2013년 16세에 SKT T1 소속으로 데뷔해 현재까지 단 한번 이적 없이 원클럽맨으로 활약하고 있다.

통산 성적(10월11일 기준) 1241전 837승·404패·승률 67.4%과 LoL 월드 챔피언십 우승 3회·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우승 10회·LoL 올스타전 우승 5회·아시아



게임 우승 1회 등 커리어를 쌓았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 데뷔한 해부터 'LoL 챔피언스 스프링(LCK)'과 'LoL 월드 챔피언십(월드컵)'에

서 우승컵을 들었고 2014년에는 팀의 15전 전승 우승과 한국 롤챔스 사상 최초 2회 연속 대회 MVP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2015년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LoL 월드 챔피언십' 등에서 우승하며 2015 대한민국 e스포츠 대상에서 LoL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또 2016년 '꼬깔콘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에서 우승해 LCK 5회 우승 및 LCK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TEM(Intel Extreme Masters)' 'MSI(Mid-Season Invitational)' 'LoL 월드 챔피언십' 등에서도 우승컵을 들었다.

2017년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MSI'에서 우승했으나 이후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리프트 라이벌즈 2017'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하며 전성기에서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LoL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땀으며

시즌 종료 후 SKT T1과 3년 재계약을 맺었다. 2019년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과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에서 우승하며 그해 열린 LCK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고 2020년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LCK 3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2022년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에서 정상에 등극하며 2년 만에 우승컵을 안았으나 나머지 열린 모든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쳤다.

시즌 종료 후 이상혁은 SKT T1과 3년 재계약을 했다. 정확한 연봉은 공개된 바 없으나 업계에서는 70억 원으로 추정했다. SKT T1과 재계약 전 한 중국팀에서 연봉 2000만 달러(약 260억 원)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하고 3배 이상 적은 연봉에도 소속 팀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상혁은 최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페이커

프로게이머



뉴스시스

목에 걸고 금의환향했다. 손목부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평가전부터 조별 리그 경기에 나서 최선을 다한 결과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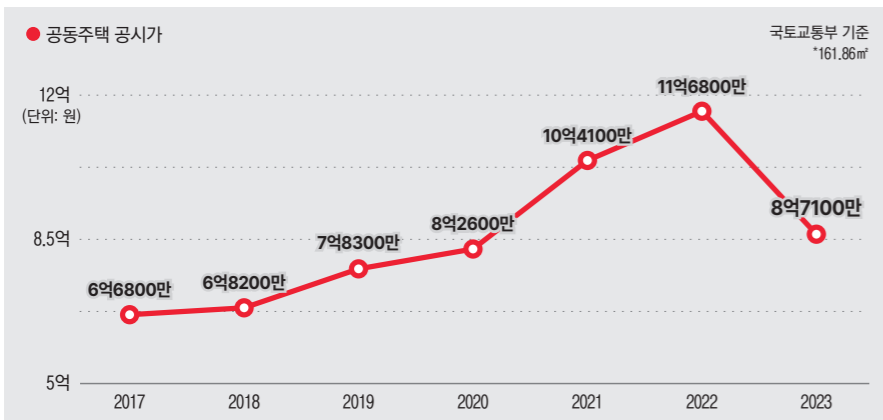
그의 명성과 함께 부동산도 화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자신의 이름을 딴 '페이커 타워'(사진)라는 이름의 빌딩을 2020

년 6월 113억 원에 주식회사 에이블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연면적 3047.15㎡(약 921.79평) 대지면적 606.13㎡(약 183.35평)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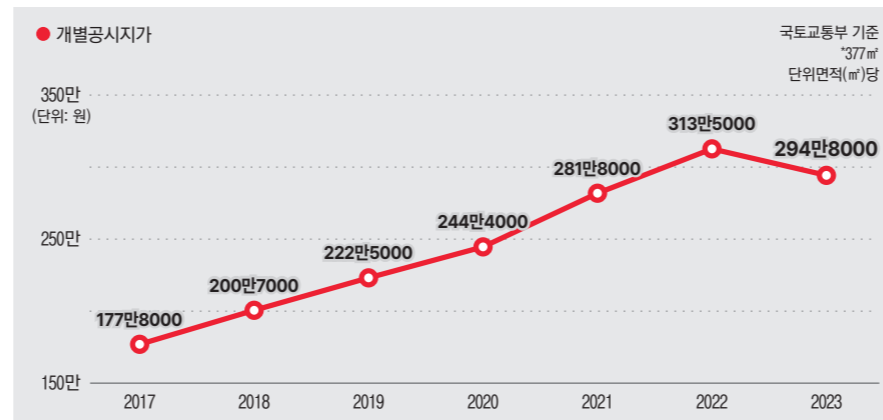
주식회사 에이블은 2020년 5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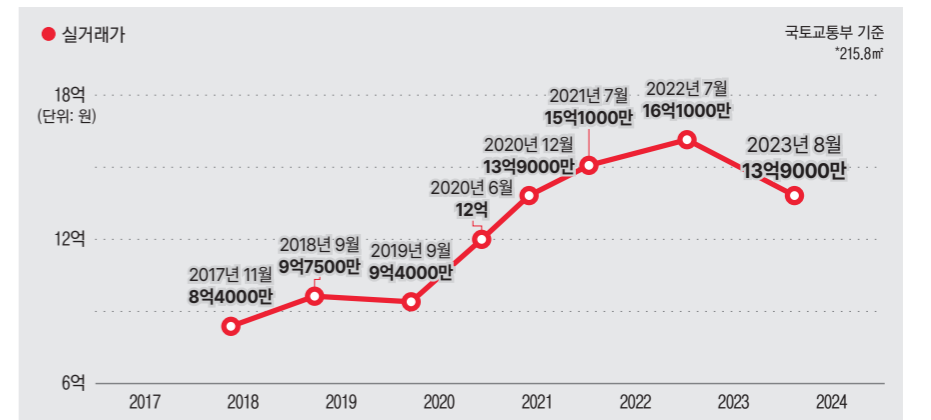
강서힐스테이트(서울 강서구 화곡동)



토지(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정산롯데캐슬(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광흙 현베이넥스 대표이사

연광흙 베이넥스 대표이사는 정보기술(IT)서비스 전문기업 베이넥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넥스는 IT 인프라 구축 서비스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회사로 2017년부터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의 한국 총판으로서 인공지능(AI) 연구에 효율적인 IT 환경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및 구축 서비스를 하고 있다. AI는 금융·제조·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미래가치가 높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를 위한 DGX 어플라이언스 제품군과 연산을 가속화하는 테슬라 GPU, 비주얼 컴퓨팅 플랫폼인 쿼드로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고성능 플래시디스크 시스템인 퓨어스토리지(PureStorage)의 한국 총판 비즈니스도 함께 진행 중이다. 연 대표는 "국내의 AI인프라 확대 뿐 아니라 AI솔루션 보급과 AI데이터 생산 및 SW개발을 통해 폭발적인 AI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근 현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으나 생계 어려움으로 3학년 때 중퇴했다. 1976년 우진건설산업을 설립해 1983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그는 부도로 폐업한 후 1983년 삼진엔지니어링을 세워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1993년 회사이름을 부영으로 변경한 뒤 2009년 말 주력 계열사의 사업 구조 개편 작업을 단행하며 주택과 해외사업 부문을 각각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으로 물적 분할했다. 골프장인 부영CC와 부영환경산업을 설립하고 대한전선으로부터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인수해 레저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 회장은 '교육



재화는 한번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신념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2010년부터 한국에 유학 온 해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채정병 전롯데카드 대표이사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그룹에 입사했다.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이사, 롯데호텔 경영지원실 전무이사, 롯데그룹 정책지원본부 사장을 거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그룹의 재무·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맡았다. 2013년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자 수습을 위해 채정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취임 후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마케팅과 보안전문기업에 컨설팅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신용카드 취급고와 시장점유율을 사고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정보기술(IT) 시장 확대 등 변화를 감지하고 핀



테크·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과 기술·재무·역량 구축에 힘썼다. 2017년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급여·여유·퇴직금 등을 합해 19억1000만 원을 받아 그해 상반기 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맛있는 우리동네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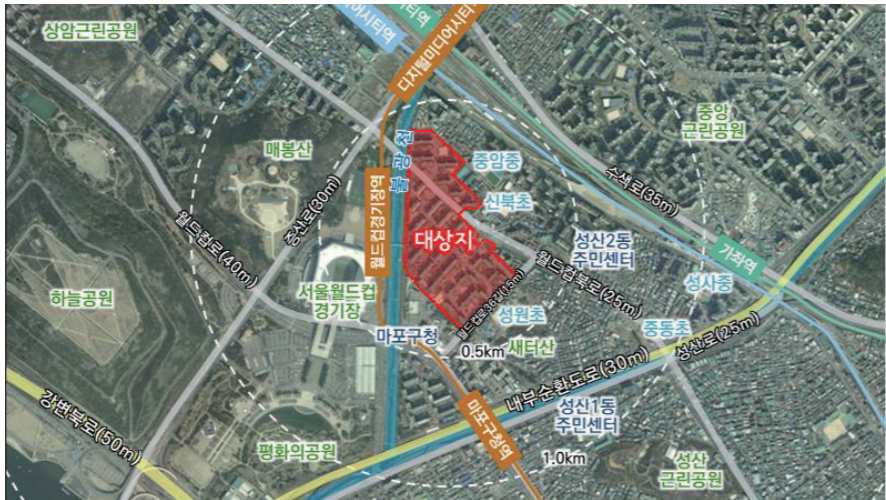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30개동·4823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 마포구

서울시는 18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성산시영아파트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해 추진했기에 올해 8월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어 급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1986년 준공된 성산시영아파트(유원·선경·대우) 33개동·3710가구를 아파트 30개동·4823가구(공공주택 516가구)로 재건축해 주택공급 및 공공주택 확보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 주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대상지. 서울시

거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높이(층수)를 2022년 12월 주민공람 시 최고 35층으로 계획했으나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120m 이하 범위에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높이기준을 준수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주민 요청을 수용해 이번 심의에서 최고 40층으로 결정됐다.

공급이 늘어나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불광천 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월드컵경기장·문화비축기 등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된 수변 중심공간이 형성되도록 했고 공원 변에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 이용시설을 배치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공원, 월드컵경기장 및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6~10m 이상)를 조성하고 특히 마포구청변에 양방향 자전거도로 4m 이상 조성해 불광천변 자전거도로로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교통·복지·교육·문화·행동 등 인프라를 모두 갖춘 강북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jung@skyedaily.com

옛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지정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는 원도심의 경관을 조화롭게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을 도내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특례 적용 제도로 도는 이번이 처음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부지로 해당 사업은 천안시와 기업, 민간이 협업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민간 부문을 공공 부문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651가구)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며 이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조감도. 충청남도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무시설과 함께 공공보행로, 광장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

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에 의한 획일적인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개선하고 더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로 도시경관이 변화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jung@skyedaily.com